

한우값 폭락... 울고 싶은 축산농

구제역에 소비 줄고 사육두수 늘어 전년보다 23.7%↓

수입 물량 22%↑...농협 "내년 3월까지 13만마리 감축"

한우 가격 하락이 무섭다.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 여파에 따른 소비 감소와 매년 늘어나는 한우 사육 두수로 가격이 연일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마저 깊어지고 있다.

1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호남권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보면 10일 기준 한우 1등급 암소 기준 경락가는 kg당 1만247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510원에 비해 23.7%나 떨어졌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도 19.9%가 하락했다.

한우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구제역으로 소비자들의 기피가 계속되면서 소비량이 크게 준 탓이다. 또 한우 11만 4000마리가 살처분됐지만 소비량 감소로 사육 두수는 오히려 증가해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통계청 '한우유 사육 동향'을 보면 지

난 2009년 6월 한우 사육 두수는 260만 마리 수준에 그쳤지만, 올 3월 현재 273만마리로 증가한 것. 이와 함께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 및 소비 증가도 한우가격 급락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올해 1~4월 쇠고기 전체 수입량은 9만827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1만7755t) 늘었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3만626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1만1752t)나 늘었다. 호주산 수입량은 4만8200t이었다.

수입량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정육매장에서 수입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매출 비율도 크게 상승중이다.

12일 광주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매출비율은 한우가 98%를 차지하고 호주산이 1% 남짓, 미국산은 겨

의 매출이 없었다"며 "그러나 구제역 여파와 수입산 쇠고기의 저렴한 가격 때문에 지난 5월에는 매출비율이 한우 75%, 호주산 20%, 미국산 5% 정도로 수입산 쇠고기의 매출이 올랐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이마트에서 한우 등심 1등급 100g 가격은 4800원으로, 비슷한 부위인 호주산 척를 2380원, 미국산 척를 2980원에 팔리는 것과 비교하면 호주산은 가격이 절반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이 계속되고 이동제한 조치로 한우를 출하하지 못했던 농민들이 출하를 시작하면 한우 값 하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도축을 대기하고 있는 한우만 총 19만마리로 지난해 15만8000마리보다 2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협을 중심으로 적정 두수를 유지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농협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는 "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위주로 내년 3월까지 13만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할인 행사를 펼쳐 물량을 최대한 소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1등급 한우'의 불편한 진실

최고 등급 오인...실상은 5개 등급중 세번째

"우리 식당에서는 1등급 한우만 사용합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 진실인지는 주인의 양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실사 1등급을 사용해 허위는 아니라도 그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한우의 육질 등급은 1++, 1+, 1, 2, 3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일반 소비자가 흔히 최고 등급이라 생각하는 1등급은 실상 세번째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 육질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를 더 명확하게 하려고 식육판매 표시판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등급 한우일 경우 기존에는 등급란에 '1'이라고만 쓰면 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1++', '1+', '1, 2, 3, 등의'라고 전체 등급을 먼저 열거하고 해당 등급(1)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 기관·단체는 1등급을 최고로 오인하기 쉬운 표시방식 개선을 건의해왔다. 그

러나 개선된 제도도 식육판매점에만 적용될 뿐 식당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손님들은 여전히 '1등급 한우'에 현혹될 가능성에 노출됐다.

축산당국은 품질개량이 되면서 1++, 1+ 등 더 나은 등급이 생겼을 뿐, 1등급도 이름에 걸맞게 품질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분포도를 따져 봐도 1등급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다.

지난달 한우 등급별 출현율을 보면 1++등급 9.6%, 1+등급 23.3%, 1등급 31.1%, 2등급 25.1%, 3등급 10.3%로, 1등급은 가장 흔하다. 이처럼 등급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는 축산업자에 대한 배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2일 "축산업자도 배려해야 하지만 소비자도 보호대상인 만큼 최고 5등급에서 1등급까지 분류하는 일본처럼 1~5등급이나 A~E 등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혼동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말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변동 장세, 저점매수 기회 활용 에너지·건설·내수주 중심 대응

KOSPI가 6월 들어 단 한차례의 변동도 없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극도로 위축된 시장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3.25%로 전격 인상하는 등 경기 측면에서의 불투명성이 이어지는 것이 반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인상 역시 물가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며, 향후 경기 펀더멘탈이나 유동성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상승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당분간 변동성 장세 탈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주된 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다소 지난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경기지표 부진이 일본 대지진의 여파와 고유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고, 소비-생산 갭 확대 추세와 낮은 재고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여건도 아니기 때문이다.

QE2 종료와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당장 심리적인 압박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우려감 역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의 심리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경제지표들 중 상당수가 기존보다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한편으로 최근 KOSPI의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2/4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가상승률이 높았던 음식료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그 당시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도 업종별 가격 메리트를 부각시켜 줄 전망이다.

결국 최근의 변동성 장세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주를 고비로 '프리닝시즌'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최근 하락세로 실적대비 가격 메리트가 돋보이는 에너지와 건설, 내수관련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박중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무거운 빛에 희망의 빛 드려요"

광주신보재단-자산공사 서민금융 지원 협약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사가 '서민금융 상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신용·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및 광주시의 '빛고을돌봄사업'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 최고 44%에 이르는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중금소외계층에 저금리상품지원

확대 ▲광주시 빛고을돌봄사업 일환인 '바퀴드림론'과 광주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대출인 '햇살론'의 상호 안내 및 지원 강화 ▲고객이 한 곳만 방문해도 광주신보와 캠코 양 기관의 금융상품의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업무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서민금융(햇살론·바퀴드림론) 문의(062-231-3066, 950-0011).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달 들어 화창한 날씨에 일조량이 늘어나자 유통업체가 자외선 차단제 등 'Sun-care'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고객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층 한 화장품 매장에서 올바른 자외선 차단법을 알리는 '뷰티 클래스' 교실이 열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서울 종로점 OPEN

[국제보청기]

총로5가역 4번출입구 1층(지하철 1호선)

문의전화 : 02)765-9940

찾아오시는 길

1층 국제보청기

종로 5가역 4번출입구 동대문시장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이연인과 옆)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중앙시장 앞)

목포점 061-262-9200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승정리역서스 월화수 5·18학생교육문화회관 5·18기념문화회관 ↑ 시청

지하철 1호선 3·4번출구

↓ 시내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명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오리

약오리 백숙

향암육수 샤브샤브

누.코.임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월드덕 찜

향암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웨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솔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